

예수 부활 대축일

기도서 P. 278 C해

제1독서(사 도 10, 34, 37-43)

제2독서(골 로 3, 1-4)

복 음(루 까 24, 1-12)

숨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부활절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살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생명의 계절과 함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축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그의 빛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수난하신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만민에게 전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 날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으로써 우리 인간은 죽음과 멸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결정적으로 구원된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첨가되는 어느 부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우리 생명을 지어주신 하느님께서 죽음을 정복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영원한 구원을 향한 도약의 시작입니다.

1.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확실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서에 기록된 몇 사람의 소생-야이로의 딸의 부활(마테오 9, 18-26), 나자로의 부활(요한 11, 38-44)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죽기 이전의 생활상태로 되돌아와 인간의 일상생활의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죽는, 그런 자연 생명적인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이며, 죽음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로마 6, 9)고 사도 바울로가 말씀하셨듯이 인간으로서 죽음의 법칙에 예속되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을 받지 않는 불멸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전에는 먼저 쓰라린 고통과 처절한 죽음이 전제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 죽음과 부활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로써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은, 그 죽음의 십자가에 구원의 힘을 부여하는 커다란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흔히 있는 시사적인 것을 넘어 구원을 위한 커다란

속죄의 의미로써의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으로써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이요,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력한 인간에게도 하느님의 다스림이, 그리고 죽음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보장된 것입니다.

2. 우리 시대에 예수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닌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그분의 지상생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르 15, 34) 하고 외치신 그리스도의 처절한 기도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절규요, 우리 인간생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역사의 번민이 오히려 밝은 내일로써 그 가치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처절한 기도와 죽음을, 오늘의 현실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지상생활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치를 더욱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 생활로써 이 시대에 감추어진 진리를 찾고, 무력해진 인간회복과 부정적인 현실을 밝혀야겠으며, 실망과 좌절, 그리고 체념하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활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불의와 부정, 폭력과 억압, 그리고 차별의 뿌리가 깊어지는 오늘, 인간세계를 갈라놓는 모든 분열의 담을 헐고, 우리의 현실속에서 정의와 진리, 참된 인간성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참다운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은 결코 먼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고통과 어둠을 누가 분담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오늘의 모습인 교회-바로 우리 자신이 동참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2면에 계속>

(2) 순 정 이

<1면에서 계속>

그러기에 교회 역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인간사회를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로서 보여주신 희망을 이 시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리만큼, 이 시대의 고통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3. 크리스찬 생활과 예수 부활

우리는 매번 어떤 정책을 사회에 내놓아야 할 만큼, 이 사회를 구체적으로 건설할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가지는 구원에의 밝은 희망입니다.

금년 사목지침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적쇄신으로 교회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산교회가 되고 사회 도덕의 양심과 사회풍토의 영적인 표지가 될 때, 교회는 이 시대를 도울 수 있으며, 온 국민의 정신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야 이 시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부활에 사는 예언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대의 사랑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운 한 가운데서도 사랑에 살고, 보다 큰 사랑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기 위한 크리스찬의 참다운 생활이라면 먼저 우리들의 생활을 부활의 생명에 귀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안에 우리의 생명도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섭리되며 그분의 빛으로 빛날 때, 비로소 구원의 희망을 볼 것이며 우리의 삶 자체는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부활을 이루도록 합시다. 이제까지 식었던 신앙을 새롭게 부활 시킴으로써 밝은 새 생활과 새 마음으로 이 사회, 내 이웃에 밝은 빛을 밝힙시다.

인간을 인간답게 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밝은 내일로 해신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부활의 과업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크리스찬의 참다운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끝없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80년 부활절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축 부 활 !!!

천주교 전주교구청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천주교 전주교구 가톨릭선타

사제양성을 위한 사순절

성금을 정성껏 봉헌합시다.

이제 우리들의 정성을 봉헌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 정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저 금통에 손을 한 번 더 댓시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닢을 더 기뻐하시는 하느님이시니 정성만을 다해서 빈 저 금통이라도 봉헌합시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갈라디아 6장 8절)

각 본당이나 공소에서는 오늘 부활축일이나 또는 다음 주일에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간단한 봉헌 예절과 함께 <사제양성 저금통>을 봉헌합시다.

□ 예절...1. 시작 기도

2. 성서 봉독(갈라디아 6장 6절-10절)

3. 간단한 강론이나 묵상

4. 성소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P82)

5. 사제양성 저금통 봉헌

6. 마침 성가

순 정 이 산 채



진리는 항상 밝혀진다!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 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학약국 옆
전화 ☎ 4451 유 율리안나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강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 0921

범 띠도(덕배)·이 마리야



농민의 소리

나 중 윤(스테파노)

10년전의 일로 기억된다. 그러니까, 1970년 6월 어느날 아침 신문을 받아 보니, 거기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다. <나무가 앞으로 몸을 가릴 때, 여인은 걸 옷을 하나, 들 벗게 됩니다. 깨끗한 피부 캄비손 연고> 만약 오늘의 농부에게 그들의 심경을 묻는다면, 농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물가가 오를 때 쌀값은 떨어진다. 살 길은 서울로...”

20세기 초반 영국의 시인 ‘키펀링’은 “동은 동, 서는 서, 동과 서는 영원히 합칠 날이 없으리” 하고 노래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은 농경민족이었고, 서양인은 유목민족이었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은 너무도 상반된 사고와 삶을 살았다. 이같은 의식의 차이와 관습의 차이가 합칠 수 없다는 ‘키펀링’의 시(詩)는 매우 시사적이다.

그 하나의 실례로, 농경민족은 정착된 생활을 하지만, 유목민족은 목축하기 좋은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을 한다. 따라서 우리같은 농경민족은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거기서 산다. 그런 우리가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나 하듯, 두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다. 물론 전쟁으로 의주나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한적이 많지만, 전쟁이 없는데도 이사를 한 것은 일제시대에 살 길을 찾아 북간도로 간 것과, 오늘날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이다. 전 국토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수도권 안에, 전국민의 3분의 1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웅변해 준다.

왜 그럴까?

지난번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대중 교통요금과 쌀값을 동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고마운 약속이다. 59.6%나 석유값이 오르는 오늘의 현실에서, 비록 미봉책이긴 하나 고물가시대에 사는 서민대중에게 그래도 숨통을 터주는 소리였다. 그러나 대중 교통요금 동결에는 운수업자에게 세금을 감면, 적자의 폭을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에 농민에게 농지세나 수세를 감면하겠다는 약속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래도 빠스 한 대라도 가진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보다 나은 편이다. 농사를 지어서 생산비를 제하면, 남은 것은 왕겨점질 몇 가마와 벼짚 몇 다발에 불과하다. 농한기를 이용 가마니를 짜도 하루 수입 3,000원이 어렵다. 요즘은 초위 인력난이다 해서 품팔이꾼 자식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 하고 나오는게 아니라 ‘7,000원!’ 하고 나오는데, 농민의 수입이 도시 근로자의 반(半)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적자를 염려하면서, 농민은 무엇인가?

농자는 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아니라, 천하지 대호구(天下之大虎口)인가? 우리 모두 당근 자손인데

위정자여!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여러분이시여! 농민에게도 삶의 보람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밥값을 제대로 계산해 주소서!

(김계 천주교회)

요심이 (349) 김병오



TV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함께 보자

4. 13일 저녁미사와 걸친 권투시합, 집에서 혼자 시청하는 것보다 성당 안에서 여럿이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시합이 끝난 다음 미사를 시작합니다.
전동분당 신부 김병열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 8188 (자 ☎0369)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 정확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회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구역전 앞

최윤경(유리안나)

전 화 : ☎ 8653

방송시간 변경 및 원고모집

변경: 4월 1일부터

1. 사색의 오출길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1시20분~25분사이
- ② 담당: 나궁렬 신부
- ③ 원고내용: 젊은이들의 생활교과와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④ 연락처: 전주 노동동성당

2. 생활종교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월 1회
- ② 담당: 김환철 부주교
- ③ 원고내용: 생활속에서 신앙체험담, 원고지 12매
- ④ 연락처: 전주교구청
-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오늘은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저금통 봉헌의 날!!!

1. 본당 여직원 피정 : 4월 10일<목> 오후 2시~11일<금>, 가톨릭 센터에서
※ 1시 30분 접수~2시 정각에 시작, 참가비는 지난 피정시와 같음(각 본당에서 2명씩)
 2. 2/4분기 지구회의...4월 15일~18일(회의일시·장소는 각 지구장이 통지)
 3. 제 6 지구 울뜨레아...13일<일> 12시, 무주 천주교회, 참가비-1천원(중식제공)
 4. 매월 2째주 (화)요일은 「홍인 상담일」입니다. 금월은 4월 8일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방송에 공동체 성가가 방송됩니다...매일 저녁 11시~11시30분 사이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과 청취 바랍니다
- 한국 개화 초기 사진전...4월 4일~13일, 전주 문화방송국 2층에서, 많은 신자들의 관람과 성원 바랍니다
- 문학강좌 안내...4월 12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 센터에서
주제-한국 문학과 인간성 회복문제, 강사-오학영(서울대 교수)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성태수
보좌	신부	정태현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구역장, 반장, 심신단체장, 교민, 감사, 참석 바람
 2. 프란치스코 3회 월례회 : 오후 2시 강당
 3. 부활축일 미사 : 아침 6시30분, 9시, 10시 30분(주교님 집전), 어린이미사 오후 4시, 오후 7시30분
 4. 상지회 : 4월 9일 오후 7시 사무실
 5. 병자판공 : 4월 9일, 환후중에 판공성사 못보신 분은 수녀님이나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6. 판공성사 못보신 분은 미사 전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7. 성화상영 : 4월 6일 오후 8시30분 성당, 회비-300원 입장권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31,030원 성금요일 헌금 : 52,181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원근
사도	회장	박춘근

1. 축! 예수부활 : 부활을 축하합니다
2. 애령회 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자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공소 합동미사 봉헌 : 왕정리 공소에서, 6일 정오 공소대항 친선 율동이 대회도 있습니다.
5. 사제양성 후원회 저금통 봉헌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은 저금통을 다음주일까지 봉헌합니다
6. 내일부터 성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 아직 신청서를 못내신 분은 오늘중으로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7. 금주의 성경읽기 구역에, 여호수아 전체와 판관기 전체,
8. 숲정이성당 신축기금 속히 납부합니다
기왕 도와주실것 하루라도 빨리 도와주세요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성오
사도	회장	양정열

1. 감사합니다 : 제대꽃-박혜나·김종래(각 5천원) 제대초-서말가리다·일유타(4천원), 흥부남(예비자 1,500원), 감사헌금-한철수(5만원)
 2. 정원수 기증 : 송영기·염기섭·양상열
 3. 주일학교 교리 및 미사시간 변경 : 12일부터 교리-3시, 미사-4시, 많은 어린이 보내주세요
 4. 아직 판공성사 못보신 분 성사포 가지고 성사포주세요 (매 미사 전후)
 5.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저금통 빠른 시일내에 납부...
- 지난주 봉헌금 : 372,9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판공성사 못보신 분은 미사전후에 보세요
3.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을 주수와 성명을 써서 다음주일까지 내주세요
4. 예비자교리
① 매주일 공식미사(10시30분) 후-허혜사
②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8시) 후-박신부
5. 각 썰 지도자 모임 : 4월 15일<수> 오후 8시 박신부님 방
6. 판공교리 시험지 : 4월 13일까지 제출할 것
7. 병자봉성제 : 4월 11일 금요일

(병자 가정에서는 미리 연락 바람)

지난주 봉헌금 : 225,810원
인성회헌금(탄식 포함) : 128,21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축! 부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빕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사제관)
 3. 축! 영세자 환영 : 집심으로 축하합니다(28명)
 4. 반장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사무장 이취임
김재열 사무장님, 7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사무장님,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김한기·차상열
신자들의 기도-김낙균·김태수
 7. 감사합니다 : 김낙균-선동기 2대,
방성용-정원수 25교우
- 지난주 봉헌금 : 153,870원 교무금 : 465,4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성금요일 단식 및 사순절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13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3. 요안회 월례회 : 13일(남상용 형제배)
 4. 미사시간 변경 안내 : 4월 13일부터
① 주일 아침미사-6시, 공식미사-오전 10시
오후미사-7시30분으로
② 평일 아침미사-6시, 오후미사-7시30분으로
③ 토요일 아동미사-오후 3시,
중·고생미사-오후 7시30분
 5. 신축기금 내주시 분 : 송정원(5만원), 파티마 꼬피시움(65,550원), 전동본당 신입액중(10만5천원), 노송본당신입액중(13만7천원), 복자본당 신입액중(1만원), 파티마본당 신입액중(10만4천원), 덕진본당 신입액중(146,500원), 중앙본당 신입액중(5만원), 성심여고 신자학생 85명(25,800원)
- 지난주 봉헌금 : 189,7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김유석

1. 사도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행사 : 9시미사후, 성경시험, 성가경연대회
 3. 부활절을 빛내주시 분들 : 주일학교 자도회장 최덕순(막달레나)-부활달걀 300개, 진선미꽃집 범덕배(떡도)-꽃 6만원, 조미령(로사리아)-헌금 1만원 감사
 4. 미사시간 변경 : 저녁미사-오후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351,68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미사시간 변경안내 : 월요일 아침미사-6시30분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3. 봄 판공성사 안보신 분 빨리 보세요
 4. 사순절 봉헌 : 사제양성 저금통·다음주까지 가져오세요
사순절 봉헌카드 애구함에 넣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16,515원 교무금 : 292,600원

성 주 간 안 내 (3.30 - 4.5)

(80 중앙천 주교회)

* 성주간이란? 예수 수난(성지) 주일부터 예수 부활까지의 한주간을 말하며, 예수 수난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년중 가장 뜻깊은 주간이다.

* 성주간동안 우리는? 1)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생활한다.
(속죄와 사랑의 실천)
2) 성주간 예절에 참여한다.

○ 예수 수난(성지) 주일 :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1. 의미 : 주의 빠스카 신비인 주의 수난과 부활을 미리 준비한다.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이 고마우신 입성을 기념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은총을 통해 십자가와 같은 운명을 닮고 또한 주의 부활과 생명에 한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2. 전례 : 제 1부 성지행렬

- 1) 신자들은 축성할 나무가지들 들고 성모상 앞에 모인다.
- 2) 주례자가 나올때, "호산나, 다위의 후손..." 을 노래한다.
- 3) 주례자의 인사와 예식에 대한 권고, 기도
- 4) 성수와 향으로 나무가지 축성
- 5) 복음봉독 (루가 19, 28-40)

6)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행렬
행렬하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

— "헤브레아 아이들이 올리바 가지들..."

— 그리스도 왕께 드리는 성시

주례자가 성당안에 들어가면 : 공동체 성가 218번 (왕되신 우리 주)

제 2부 미사성제

- 1) 개회식이 생략되고 바로 본기도가 바쳐지며, 이어서 보통때와 같음.
- 2) 수난복음 : 루가 23.1-49

(복음후, "그리스도께 찬미" 하지 않는다)

※ 성 가 : 독서후 70, 복음전 66, 봉헌 353
(공동체) 영성체 424, 423, 퇴장 156

○ 성목요일 : 4 월 3 일

* 성유축성미사 : 오전 11 시

1. 의미 : 성사 집전시 사용하는 성유를 축성하며, 사제들의 약속 갱신식이 있다.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제직을 사도들과 그후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심을 기념한다. 우리들은 사제들을 위해 미사중에 기도해야 한다.
2. 전례 :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결합을 표현하는 미사를 드리며, 미사중에 성유를 축성한다. (이때 영성체한 신자는 저녁 미사에도 영성체할 수 있다.)

※ 성가 : 입당 49, 독서 416, 복음전 63, 봉헌(새) 53, 영성체 387·362, 퇴장 484

* 주의 만찬 저녁 미사 : 오후 7 시 30 분

1. 의미 : 주께서 수고 수난하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의 최후만찬의 기념이다. 성체성사와 신품성사의 제정 및 형제적 사랑에 대하여 묵상한다.
2. 전례 : 1) 대영광송을 할때 종을 친다.
2) 세족례 : 복음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것을 기념하여 사도회 임원 12명의 발을 씻긴다.
3) 봉헌예절 :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사순절 동안에 희생한 내용을 모아 봉헌한다.
4) 성체를 무덤 제대에 옮겨모시는 예절
 - 영성체후 기도를 마친후, 사제는 꿇어 성체께 분향하고, 십자가를 선두로 무덤제대로 성체를 옮긴다.
 - 성체를 옮기는 동안에 공동체 성가집 129 번을 노래한다.
 - 무덤제대에 이르러 사제는 다시 분향하고, 성체를 감실속에 모신다. 그동안 공동체 성가집 128 번을 노래한다.
 - 사제는 복사들과 함께 제의방으로 돌아와서 제의를 벗고 나와 제단위의 모든것을 치운다.
- 5) 이어서 금요일 낮 12 시까지 성체 조배가 시작된다.

(* 성체 조배 방법과 조배팀 순서는 게시판 참조)

※ 성가 : 입 당 26, 독서 후 69, 복음전 65
봉 헌 81, 영성체 347, 102

○ 성금요일 주의 수난(단식과 금욕) : 4월 4일 오후 7시 30분

1. 의미 : 주의 수난을 기념하는 날로써 단식과 금욕을 지킨다.
이로써 주의 죽으심의 신비속에 더욱 깊게 참여한다.

2. 전례

제 1부 : 말씀의 전례

- 1) 사제의 입장과 침묵기도(사제는 제단앞에 엎드린다)
- 2) 제 1독서 : 이사야 52. 13-53 총제송 : 공동 58 번
- 3) 제 2독서 : 히브리서 4. 14-16. 5, 7-9 복음전노래 : 공동 69 번
- 4) 수난복음 : 요한 18. 1-19. 42
- 5) 신자들의 기도(지향-침묵-기도)

제 2부 : 십자가의 경배

- 1) 사제는 십자가의 가린 보를 벗기며, “보라, 십자 나무…”
를 노래한다. (세 번)
- 2) 십자가의 장엄 경배(성체를 모실 때처럼 두줄로 나와, 깊
게 절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 3) 행렬이 계속되는 동안 공동체 성가집 199, 200, 194,
195 를 노래한다.

제 3부 : 영성체

- 영성체후 강복없이 백성을 위한 기도로서 예식이 끝난다.
- 성가 121, 105 퇴장 133

○ 성토요일 부활 전야 : 4월 5일 오후 7시 30분

1. 의미 : 이날 밤은 오랜 관습에 따라 주를 기억하는 밤이다.
복음의 권유를 따라 신자들이 손에 등불을 밝혀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인이 돌아올 때에 깨어있어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밤이다.

2. 전례 : 제 1부 빛의 예식

- 1) 성당문 밖에 모여 선다. (성당 불을 다 끈다)
- 2) 주례자의 인사와 예식 설명
- 3) 불의 축성, 부활 초의 축성 및 점화
- 4) 행렬 : 주례자가 성당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광명” 하면

“천주께 감사”라고 응답한다. (3번)

— 두번째 응답후 부활초에서 준비한 초에 불을 붙인다.

5) 부활 찬송

제 2 부 말씀의 전례 (신자들은 촛불을 끈다.)

- 1) 사제는 말씀의 전례에 대한 설명을 한다. (3개의 독서를 하며, 독서 후에는 총계송이 있고, 이어서 기도가 있다.)
- 2) 제 2 독서 : 창세기 22, 1 - 18
- 3) 제 3 독서 : 출애굽기 14, 15 - 15, 1
- 4) 제 7 독서 : 에제키엘 36, 16 - 28
- 5) 대영 광송 (기쁨을 나타내는 종을 친다.) 이어서 본기도가 있다.
- 6) 독서 : 로마서 6, 3 - 11 독서 후에 “알렐루야 …”를 노래한다.
- 7) 복음 : 루가 24, 1 - 12

제 3 부 성세 예절

- 1) 성수 축성
- 2) 성세 서원 갱신 (촛불을 손에 쥘고 서서 성세 때에 한 신앙의 약속을 갱신한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린다.
- 3) 신경은 없고 신자들 기도가 바쳐진다.

제 4 부 성찬의 전례

- 1) 봉헌 예절부터 보통 때와 같다.
- 2) 파전 : 주례자 “미사가 끝났으니, … 알렐루야, 알렐루야”
신자 “천주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성가 : 봉헌 113 (정선) 영성체 114 (정선) 204, 205 (공)
 퇴장 112 (정선)